

December 23, 2006

경향신문
미디어칸 | khan.co.kr

“한국 정당들 정책개발 능력 취약”

獨 아데나워재단 그라보브박사 정치발전 심포지엄서 비판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독일의 정당재단들과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들은 발족된 지 2년밖에 안돼 연륜이 짧고,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고, 정책개발의 과학성이나 일관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정당들은 독일 정당들보다 정책개발 능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의 국제협력국 프로젝트 조정관인 카르스텐 그라보브 박사(39·사진)는 최근 대우센터에서 열린 한·독 정치발전 심포지엄(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와 주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주최)에 발표자로 참가한 뒤 한국정당들에 대한 인상을 이같이 평가했다. ‘독일의 정당민주주의와 정당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그라보브 박사는 “독일의 정당재단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라보브는 “한국의 정당법 27조에 근거해 한국내 5개 정당들이 2004년 9~11월 정책연구소를 신설했음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연구소는 당의 강령이나 정책개발에 취약하고 이들이 선거용 조직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라보브 박사는 독일정당들의 정책개발에 대해 “임시 위원회가 당강령이나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정당이 심의과정을 거쳐 정강·정책으로



“정당연구소 독립성 갖춰야 선거용 조직으로 이용 잘못”

체택한다. 큰 사회적 변화가 없는 한 대체로 10~15년 정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가 내놓는 정책들은 1~2년 사이에 변해 일관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라보브 박사는 독일 정당재단들의 활동에 대해 “연방의회에 대표된 6개 정당은 당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정당재단을 하나씩 갖고 있다”면서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스자이델 재단 등을 들었다. 그는 “정당재단의 주된 활동은 민주적 가치를 국내외에 확

산시키고, 교육사업을 펼치며, 학문을 장려하고, 해외연계사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재단들의 성격에 대해 그라보브는 “연방의회가 할당하는 공공자금을 받는 만큼 공익협회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에 밀접하지만 조직·재정·활동에서는 독립돼 있다는 얘기다. 활동 범위만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존중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라보브는 “특히 정당재단들은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지원이나 자금지원 등 직접적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라보브 박사는 ‘로스록 페스티벌’로 유명한 동독의 로스록 출신이다. 로스록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학을 거쳐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1955년 ‘기독교민주교육사업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정당재단이다. 기민련·기사련과 연계된 아데나워재단은 미국·한국 등 해외 60여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유사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아데나워 재단의 한국사무소(대표 마르크 치맥)는 한나라당, 한국내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년전부터는 하나원 교육을 거쳐온 젊은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 실행태·사진 박민규기자

December 23, 2006

Übersetzung

„Mangel an Politikentwicklungsfähigkeit ist die Schwäche der koreanischen Parteien“ kritisiert Dr. Grabow von der Konrad-Adenauer-Stiftung Deutschland beim Symposium für Parteiendemokratie.

„Die koreanischen Parteieninstitute unterscheiden sich deutlich von den deutschen. Die Parteieninstitute wurden erst in den letzten zwei Jahren gegründet und sind noch in großem Maße von den Parteien abhängig. Außerdem habe ich den Eindruck, dass bei der Politikentwicklung Einheitlichkeit und Systematik fehlen. Die koreanischen Parteien haben im Vergleich zu deutschen eine nicht so ausgeprägte Politikentwicklungsfähigkeit.“

Der Projekt-Koordinator im Bereich „Internationalen Zusammenarbeit“ der Konrad-Adenauer-Stiftung in Berlin war beim Symposium für internationale Parteiendemokratie (organisiert von KAVKAS und KAS Korea) als Referent geladen. Unter dem Thema „Parteiendemokratie und die Rolle der Politischen Stiftungen in Deutschland“ hielt er einen Vortrag und erklärte, dass politische Stiftungen sich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auch in vielen anderen Ländern für die Verbreitung von Demokratie einsetzen. Dr. Grabow hob hervor, dass nach Abänderung des koreanischen Parteirechts zwischen September und November 2004 fünf Parteieninstitute gegründet wurden. Jedoch kritisierte er, dass diese Institute Schwächen bei der Politikentwicklung offenbarten und im Rahmen von Wahlen teilweise missbraucht würden.

Dr. Grabow erklärte, dass die sechs deutschen Parteien jeweils der Partei nahe stehende Stiftungen, wie z.B. die Friedrich-Ebert-Stiftung (SPD), die Konrad-Adenauer-Stiftung (CDU) oder Hanns-Seidel-Stiftung (CSU) unterhielten. Die Hauptaufgabenbereiche dieser Stiftungen sei die Verbreitung von Demokratie im In- und Ausland, verschiedene Bildungsmaßnahmen, die Förderung der Wissenschaft und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